

신체 염증이 뇌로 전이되어 우울증이 되는 과정 모니터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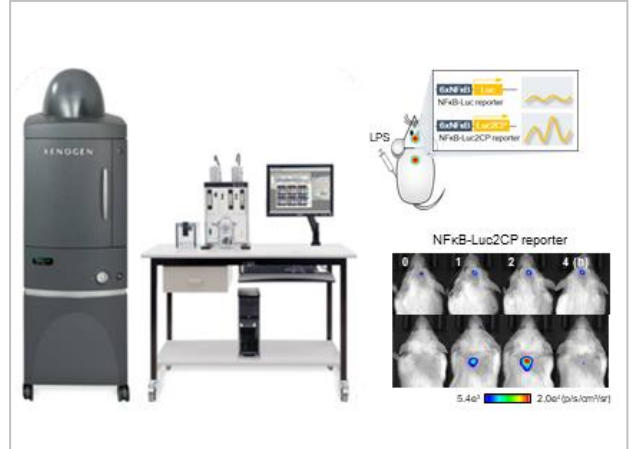
- 제1저자 : 한영민(KBSI 서울센터)
- 교신저자 : 허송욱(KBSI 서울센터)
- MOLECULAR PSYCHIATRY / 2021. 9. (DOI: [10.1038/S41380-021-01016-1](https://doi.org/10.1038/S41380-021-01016-1))

연구내용

그동안 임상 연구에서는 염증성 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왔지만, 기술적 한계로 신체 염증이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음

본 연구에서는 생체 염증센서를 개발하여 마우스에서 신체염증이 뇌로 전이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였고, 이 과정에서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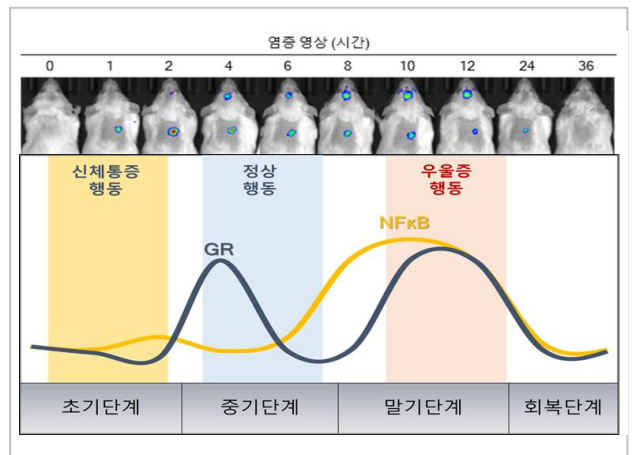
신체염증만 있는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둔해졌지만, 뇌로 염증이 전이 되었을 때는 우울증의 행동을 보여 염증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밝힘



[그림1] 생체영상장비와 염증센서

기대효과

이번 연구결과는 신체염증과 우울증의 생물학적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, COVID-19 감염과 같은 전신 염증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단서를 제공하여, 염증성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



[그림2] 시간에 따른 염증과 동물행동분석